[2016 SSG CTF - Break the windows]

바이너리에 심볼이 날아갔지만 바이너리가 작아 큰 문제는 없었다. 문제는 sp가 박살나서 hexray가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sp값을 바꿔줌으로써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크기가 작아 어셈을 보고 분석을 해도 된다.) 다음은 메인함수이다.

```
v\theta = sub 4015DC();
setvbuf((FILE *)v0 + 1, 0, 4, 0);
GET KEY 401170():
sub 401380(&get string);
dword 417FBC = 0;
puts("== ADVANCED Memory Corruption Detector. ==");
puts("== Basic Of Exploitation on Windows. ==");
dword 417FB4 = TIME(0) & 0xFFFFFFF0;
u8 = &dword 417FB4;
srand(dword 417FB4);
while (1)
  PRINT MENU 4010B0();
  memset(&get_string, 0, 0x64u);
  v1 = RAND_401EB5();
  U2 = RAND 401EB5() * U1;
  u3 = RAND 401EB5();
  010 = 03 * 02:
  u9 = u3 * u2;
  dword 417FB8 = v3 * v2;
  printf_4019B6("> ");
  scanf_401398("%d", &dword_417FBC);
  v4 = (FILE *)sub 4015DC();
  sub 401768(v4);
  if ( dword 417FBC != 1 )
    break;
  printf 4019B6("Input your string : ");
  sub 4010F0(&get string, v7);
  printf_4019B6("This is your string : %s₩n", &get_string);
  Sleep(0x64u);
  if ( sub 401020(&dword 417FB8, &v9, 4) != 1 )
    printf 4019B6("[*] Attack Detected.\nBye :pp\n");
    Sleep(0x64u);
    exit(0);
 }
}
if ( dword 417FBC == 2 )
 printf 4019B6("Good bye :p");
  puts("Wrong Number..");
Sleep(0x64u);
return 0;
```

문자열 변수가 하나 주어지고 그 변수에 계속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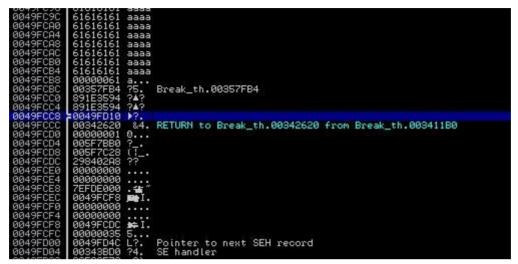
격을 해보라고 한다. 메모리 릭도 간단하게 일어나서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stack cookie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바로 overflow를 시도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stack cookie중 하나는 계속해서 rand() 함수를 통해 바뀌기 때문에 메모리 릭으로는 우회할 수가 없다. 하지만 stack cookie는 broken_window 문제처럼 SEH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우회가 가능하므로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문자열을 입력받는 함수인 sub_4010F0은 그냥 이뮤니티로 동적 디버깅을 하면서 분석을 했다.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입력받을 문자열변수, 두 번째 인자는 입력받은 문자열의 크기를 갖고있는 변수이다. 이 변수는 초기값이 0x64로 설정되어있고 문자열 변수의 크기도 0x64이므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fortune_cookie 문제처럼 등호의 문제로 인해 1바이트가 overwrite가 일어나고 입력받는 문자열의 크기를 조작할 수 있어 overflow가 일어난다.



위는 sub_4010F0 함수에서 문자열을 한바이트씩 fgetc() 함수를 통해 문자열 변수에 입력하는 루틴이다. 코드를 보면 for(i=0; i<=size; i++) 같은 코드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문자열 사이즈 변수 바로 위에 off.17FB4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으니 이것을 leak해서 base의 주소를 구할 수 있다.



또한 문자열이 저장되는 메모리 영역을 보면 멀지 않은곳에 SEH를 발견할 수 있다. 계산을 해보니 문자열을 0xb0개 만큼 써넣으면 SEH를 덮어 쓸 수 있다.

nx가 꺼져있으니 쉘코드를 넣을 공간만 찾으면 된다.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에 edi레지스터가 문자열의 주소를 가지고 있길래 edi값을 esp에 넣는 가젯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다. 여러 가지 삽질을 하던 도중 fgetc() 함수를 문자열을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궁금해져서 동적 디버깅을 하면서 찾아봤다.



찾았다. 마침 data영역이라 base 주소를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곳에 쉘코드를 넣어놓고 SEH를 이 주소로 바꾼다면 exploit이 가능할 것이다.

< Exploit >

[1byte overwrite] -> [leak off.17FB4 addr] -> [input shellcode] -> [overwrite SEH] -> exploit~!! (코드는 따로 첨부)